

## ‘버미안 효과’를 아십니까?

오재호/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글**췌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을 늘어놓으니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아무리 이혼하는 마당이라고는 하지만 이 마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겠소?” 이혼법정에 선 남녀는 저마다 자기가 잘했다고 끝끝내 주장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위자료에, 재산분할에, 자녀양육문제까지 겹치다보면 신경질이 나서 한바탕 큰소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법정에 나서긴 나서나!’

헌데 부부에게는 ‘버미안 효과’란게 있습니다. 더우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버미안 효과’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실크로드 연변에 ‘버미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웃 나라 왕자들이 저마다 욕심을 내는 예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아버지는 이웃 나라 ‘가즈니’ 왕국의 왕자에게 딸을 주고 싶었습니다. 일은 묘하게 진행됩니다. 왕은 주변 왕국의 압력에 못 이겨 공주를 선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잔피를 부려 공주를 사발시킨 다음 왕자들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왕자들은 크게 실망한 나머지 뿔뿔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왕의 계략은 성공해서 공주는 ‘가즈

니’ 왕국의 왕자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변 나라의 왕자들은 분통이 터져서 ‘버미안’ 왕국을 공격합니다. 마침내 ‘버미안’ 왕국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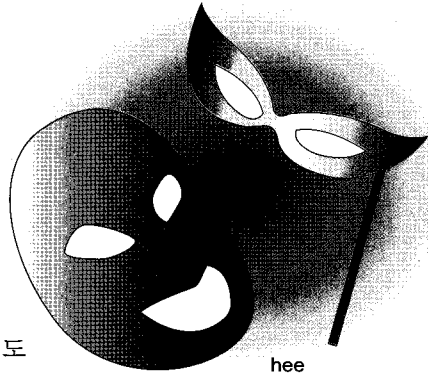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가장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는 전혀 다른 거

짓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뒤늦게 배우자의 그런 모습을 발견한 배우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았다는 배신감 때문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숨기면서 상대 배우자를 공격합니다.

즉 상대 배우자로부터 속임수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버미안 효과’입니다. 사실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답은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 드려야’ 합니다.

당신과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느낌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에는 윤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느낌’을 두고 잘 잘못을 가리겠다면 그 사람은 대화를 나눌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것도 강조해둡니다. 가령 “저는 우울함을 느낍니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우울하다’는데 그게 잘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무쪼록 부부는 자나깨나 ‘느낌대화’를 나눕시다.



hee